

손흥민·이강인 A매치 2연전 '어쩌나'

손흥민 리그 5경기 포함 총 8경기 연속 골 침묵 이강인은 리그 27R에서 발목 밟혀 부상 우려돼 28일 코트디부아르·4월 1일 오스트리아 평가전

미국 프로축구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뛰는 손흥민이 올 시즌 마수걸이 필드골을 넣지 못한 채 홍명보호로 온다.

LAFC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사커(MLS)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최전방 공격수로 풀타임을 뛴 손흥민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슈팅을 5차례 날렸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올해 첫 공식전인 지난 달 18일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신고한 뒤엔 한 달째 골 침묵에 빠져 있다.

손흥민이 올해 공식전 9경기에서 올린 공격포인트 8개 중 7개가 도움이다. 이날까지 8경기 연속 '골 침묵'에 빠져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 LAFC에 합류해 리그 후반기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올렸다.

올 시즌엔 개막 5경기에서 득점 없이 도움만 3개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A매치 기간을 맞아 영국 밀턴케인스로 가 홍명보호에 합류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기간은 23일부터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오는 28일 밀턴케인스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하고, 이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해 4월 1일 오스트리아와 대결한다.

손흥민은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2026년 첫 필드골에 도전한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는 국가대표 이강인은 3월 A매치 전 마지막 소속팀 경

기에서 왼쪽 발목을 밟혀 부상이 의심된다.

이강인은 22일(한국시간) 프랑스 니스의 알리안츠 리비에라에서 열린 니스와 2025-2026 리그1 27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이 2-0으로 앞서던 후반 20분 우스만 덴멜레와 교체됐다.

교체되기에 앞서 후반 14분 이강인은 니스 미드필더 은다이시미에로부터 거친 파울을 당했다.

이강인이 동료에게 패스하자마자 은다이시미에가 이강인의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위를 강하게 밟았다.

그라운드에 쓰러진 이강인은 왼손으로는 발목을 부여잡고 오른팔로는 눈을 가린채 고통스러워했다.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뒤 은다이시미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이강인은 교체되자마자 벤치에서 발목을 의료진의 처치를 받았다. 이강인의 발목 상태가 심각하다면 홍명보호로서는 대형 약재다.

이번 2연전을 앞두고 '중원 사령관' 황인범도 발목 부상으로 소집이 제외돼 있어 공격 핵심인 이강인마저 쓰러지는 건 홍명보호 중원에 심대한 타격이다.



2026시즌 들어 8경기 연속 골 침묵 중인 손흥민(왼쪽)과 리그 27라운드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이강인.

연합뉴스

제주 전국체전 6개 종목 도외서 열린다

사격·조정·카누·하키·수상스키·사이클(트랙)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일부 종목이 전문 경기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도외에서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 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종목별 공인·승인 규정에 부합하는 시설 확보와 선수단·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중점에 두고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현장 실사를 통해 경기장 적합성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 50개 종목 가운데 44개 종목이 도내에서 개최된다.

도외 개최 종목은 사격, 조정, 카누, 하키,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사

이클(트랙) 6개 종목으로 도내 경기장 여건과 시설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전국장애인체전도 전체 31개 종목 중 28개 종목을 도내에 배정했으며 전문 시설이 필수적인 사격, 조정, 사이클(트랙) 3개 종목은 도외 시설에서 치러진다.

도의 경기장으로는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조정), 인천 국제벨로드롬 및 창원 레포츠파크(사이클 트랙), 창원 국제사격장(사격), 부산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카누), 목포 국제축구센터 하키경기장(하키), 미사리 경정공원 조정경기장(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3월까지 중앙 종목단체의 현장 실사를 마무리하고 경기장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이정후, MLB 2026 시즌 시범경기 첫 홈런

김혜성은 4타수 1안타 기록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첫 홈런을 터뜨리며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타격 감각을 끌어올렸다.

이정후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홈런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시범경기 타율 0.455(22타수 10안타), 1홈런, 4타점, 4득점, OPS(출루율+장타율) 1.227를 기록했다.

1회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등장한 이정후는 우완 테너 바이비를 상대로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시속 95.1마일(약 153.0km)의 바깥쪽 포심을 받아쳐 투수 땅볼로 물러났다.

3회말 2사 1루에선 다시 바이비를 맞아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81.7마일(약 131.4km) 체인지업을 공략해 우전 안타로 연결



해 2사 1, 3루를 만들었다. 이어 다음 타자 맷 채프먼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이정후는 득점에 성공했다.

6-0으로 앞선 4회말엔 시범경기 첫 아치를 그렸다.

볼카운트 2볼에서 바이비의 가운데 몰린 시속 93.3마일(약 150.1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6회초 수비를 앞두고 드루 길버트와 교체해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주여중 이서경, 태권도 자유폼새 전국 '정상'

제주 이서경(제주여중·한라태권도 7관)이 태권도 자유폼새 전국 정상에 올랐다.

이서경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여중부 자유폼새에서 6.899점을 획득하며 강을(증포중), 김효림(설봉중)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자유폼새 종목은 18명의 선수가 2개조로 나눠 1~4위가 결승에서 겨뤄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서경은 이번 대회에서 2·3학년 선수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며 제9회 아시아 태권도 청소년 품새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여 티켓도 확보했다.

한편 태권도 자유폼새 경기는 정해진 동작이 있는 기존의 공인폼새와 달리, 참가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음악에 맞춰 필수 기술과 함께 자신의 기술을 직접 구성하고 태권도 동작 내에서 창의적인 동작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 대표인론' 한라일보사는 침체된 제주지역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품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수 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최운철
서부소방서 애월남성의용소방대장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김순희
서부소방서 애월여성의용소방대장

소방청장표창



송석희
서부소방서 무릉남성의용소방대장

소방청장표창



김희주
서부소방서 마라도전담의용소방대장

소방청장표창



서상욱
서부소방서 고산남성의용소방대장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및 업무유공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부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일동

수 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최운철
(도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
(배우자: 김미형)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 처가 일동